

03

과테말라

Guatemala

현지에서 길을 찾고, 그곳에 젖어 들다

- › 활동기관 : 과테말라 재해감축청
- › 자문분야 : 산업기술
- › 자문내용 : 비상사태운영센터
- › 성 명 : 심 재 구



먼 나라, 불안한 나라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이다. 수도는 해발 고도 1,500미터에 위치한 과테말라시티로, 깨끗하고 우아하여 ‘작은 파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300여 년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올해로 186년이 지났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가톨릭이 국교이다.

오늘날 과테말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불안한 치안이다. 마약 및 총기 소지 합법화로 인해 수많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테말라시티에서만 매일 20명 정도가 살인강도의 희생량이 될 정도이다. 간간히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니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나라임에 분명하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매년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으나 국가적 대책도 미비하고 국민들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정치인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이라서 역대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기도 하고, 오토 빼레스 전 대통령은 세관 부정과 관련하여 임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권좌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과테말라시티 전경



푸에고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는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이다. 연중 기온은 섭씨 15~25도로 매일 아침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Eternal spring’으로 불리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또한 온화한 기후 덕분에 거의 일 년 내내 각종 꽃이 만발하고 과일도 풍성하다. 특히 이곳의 바나나는 미국 바나나 수입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관광 인프라도 풍부하다. 커피로 유명한 옛 수도 안티구아는 스페인 정복 시절 설계된 옛 시가지와 건물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고, 강한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건물 자체도 복원하지 않고 덩으로써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과테말라 정부는 안티구아 시내 전체를 유네스코 지정 유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북부에는 ‘티칼’이라는 마야 문명 시대의 중심지가 있는데, 오랫동안 광활한 밀림 속에 잠들어 있다가 미국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어 지금은 인신 제사를 드렸던 피라미드형 높은 돌탑 등 신전 일대가 일부 발굴되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안티구아의 스페인풍 건물 뒤로 보이는 아구아 화산

강도에게 줄 돈을 챙겨라?

과테말라에 부임한 후 예약된 클라우네 플라사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서 며칠 지내면서 숙소도 구하며 당분간 필요한 생필품도 구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래저래 치안이 걱정이었다. 부임 전 교육에서나 현지인들로부터 워낙 많은 주의 사항을 들은 탓에 호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낮이든 밤이든 일체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마라’, ‘아무리 짧은 거리도 위험하다’, ‘강도를 만났을 때 줄 돈 100~200 켈잘 정도는 항상 지참하고 다녀라’, ‘일반 택시 탑승도 위험하다’ 등 수많은 조언들이 내 발을 꿈꿈 묶어 놓았다.



인신 제사를 지냈던 티칼 신전

조식이야 호텔에서 어찌어찌 해결한다지만 점심과 저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장 필요한 생필품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 일단 서울에서 가져간 식품들로 버텨 보지만 그것도 잠시뿐. 창밖으로 50m 밖에 버저킹 간판이 손짓을 해도 정작 나가질 못하니 그림의 떡이었다. 거리에 걸어 다니는 원주민 모두 총을 감춘 강도들로 보이니 이상한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가게마다 혹은 집집마다 엽총을 든 경비원이 지키고, 크고 작은 상점에도 강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주 낮설었다.

갑갑했던 주말이 지나고 KOICA 직원이 차를 가져와 함께 숙소를 구하고, 생필품도 사자고 말하는데 어찌나 반가웠던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감옥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답답하고 암담했다. 더구나 내 경우에는 자문관 중 처음으로 집사람까지 대동하기로 했으니 어서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미 겁을 먹은 내게 호텔 밖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호텔 생활 사흘째 날, 용기를 내 호텔 밖으로 몇 발짝을 나갔지만 이내 뒷머리가 근질거려 외출에 실패하고 되돌아오야 말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융통성 없이 겁먹은 게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것처럼 조심했기에 한 건의 불미스런 일도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지 않았나 싶다.



총을 들고 경계하는 주차장 경비원 / 일간 신문에 실린 권총 판매 광고

현지 적응의 든든한 힘, 종교 활동

호텔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한식이 먹고 싶었다. 한식! 한식! 한식! 한식 생각에 사로잡히니 조금 전까지 걱정하던 치안 문제는 까맣게 잊게 되었다. 프린트에 요청한 안전한 노란색 택시(콜택시)를 타고 짧은 스페인어 실력으로 무조건 한인 식당으로 가자고 했더니 용케 알아들었는지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얼큰한 육개장. 게 눈 감추듯 국물까지 싹 비우고 냈더니 그제야 내일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마침 식당 벽에 걸린 달력에 우리 교민 교회 이름이 적힌 것으로 보고 주인아주머니께 내일 아침 교회 안내를 부탁드렸다. 푸근한 인상의 주인아주머니는 이내 교회에 전화를 거셨고, 내일 아침에 호텔 앞에서 신도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다.

그렇게 만난 교회 식구들은 안정된 신앙생활은 물론 파견 초기의 각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생필품 구매 장소, 갈만한 교민 및 현지인 식당, 병원과 약국, 생선이나 과일 시장, 우체국과 은행 업무, 중고차 구매 등 수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배려는 비단 교회 때문만은 아닐 터. 같은 종교를 매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타지에 정착하는 일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때문에 나는 이후로 부임하는 자문관들에게 무엇보다 종교 시설에 나갈 것을 권유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민들과 어울리며 훌륭히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무교를 고집하는 자문관도 있다. 물론 일부 자문관, 대사관, KOICA 직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 임무 수행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렵고, 사적인 분



종교 생활을 통한 교민과의 일체감

야까지 도움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모든 일을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신앙을 통하여 신도들과 교류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은 물론 낯선 현지 생활에 적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최선이 될 것이다. 나의 경우에도 파견국을 여행할 때 신도들의 안내가 있어 한층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고, 업무와 관련된 비공식적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과테말라에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걸어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강도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속설이 있고, 더욱이 얼굴과 옷차림으로도 쉽게 한국인임이 드러나기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을 납치하면 뒷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범죄 조직의 표적도 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동을 위한 자동차는 필수적이다.

부임 후 일주일간은 기관에서 출퇴근 차량을 지원해 줬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마저도 지원이 끊기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노란색 택시를 불러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도 짧지 않아 비경제적이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중고차 한 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나였지만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 꽤 쓸 만한 차를 구할 수 있었고, 3년 후 귀국을 앞두고 적당한 가격에 매매도 할 수 있었다.



3년간 나의 발이 되어 준 고마운 애마

자동차는 내 생활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출퇴근뿐만 아니라 생필품 구매, 운동 및 취미, 주말 현지 여행 등에 요긴하게 활용하였다. 이동 안전 보장을 넘어 활동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자문관들에게도 차량 구입을 적극 권하는 바이다.

언어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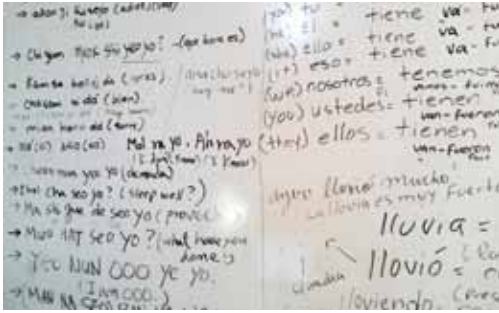
스페인어를 쓰는 과테말라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나라이다. 영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나임에도 부임 전 더듬더듬 독학한 스페인어로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난관이 많았다. 사무실에 출근하며 아침 인사하고 나면 이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현지 직원들끼리 농담에 좀처럼 동참할 수 없는 외로움은 훈민정음 서문을 떠올릴 정도였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서로 달라...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기관의 전 직원 400여 명 중에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채 안될 정도로, 현지인들은 스페인어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들에게 잘 알려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우선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생활 스페인어를 배우고, 간간히 우리말을 알려줘 간단하게나마 소통이 가능케 하는 것이 첫 단계였다. 다음으로는 기관장에게 한글 교육 학급 개설을 승인받아 직원들 중 희망자에게 우리말과 글,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우선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내 자리 뒤에 설치하고 매일 새로운 스페인어 단어와 문장을 기록하여 암송했다. 또한 사무실 안팎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 그런 나의 모습에 현지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약 3개월이 지난 후로는 기초적인 한국말 인사와 실용 표현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두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연습하도록 유도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면 직원들이 한국말로 인사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고, 서로에게 선생이자 학생이 되면서 사무실 분위기는 한층 유쾌해졌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마침내 다른 사무실 직원들까지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 된 것이었다. 담당 국장을 통해 재해감축청(CONRED) 청장에게 직원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급 개설을 요청하였다. 소식을 들은 청장은 좋은 시도라며 흔쾌히 승인하였다. 나는 서둘러 인터넷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했고, 주 2회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글 교재는 한인회 한글 학교에 요



화이트보드에 매일 기록하여 암송한 우리말과 스페인어

청하여 저학년 사용 교재를 지원받았다. 직원들 역시 한글 공부에 매진함으로써 어느새 한글을 읽고 쉬운 단어를 말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기 부여도 중요하기에 한글 교육 수료자는 차년도 KOICA 국내 연수 프로그램의 피교육자로 우선 선발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내용은 내가 귀국하기 전에 현실

화되어 수료자들 중 4명이 곧 우리나라에 연수를 오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일은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사관에 우리나라 관광, 음식, 의복 등 여러 분야의 관련 동영상 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넷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준비하여 한글 수업마다 틀어 줬다. 사실 우리가 과테말라를 모르는 것처럼 과테말라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모른다. 이들에게 동양인은 중국인과 일본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는 삼성의 휴대 전화와 현대자동차가 일본 제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기관의 공무원도 이러한데 일반인은 안 봐도 훤히 일일 터.



기관에 개설한 한글 교실 수업

결과적으로 한글 교육을 통하여 적어도 기관 내에서만큼은 나와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내가 귀국하는 날까지 충실한 후원자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특히 활동기간 동안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큰 도움을 받았다.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대표들



프레젠테이션 발표 모습

이 모인 자리에서 어설픈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이때마다 나의 한글반 제자들은 스페인어 교정, 전문 PPT 작업, 프레젠테이션 총괄 지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껏 도와주었고 덕분에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집사람 역시 큰 역할을 해주었다. 꽃꽂이 강사였던 집사람이 특기를 살려 기관 내 여직원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면 정서 함양과 우리 문화 전파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마침 담당 국장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음날 바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주었다. 곧바로 공고를 내고 매주 한 번씩 무료로 꽃꽂이를 배울 수강생을 모집했다. 꽃 값만 내면 전문적인 꽃꽂이를 배울 수 있고, 더욱이 완성한 작품은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관 내에 퍼지면서 추가 희망자들이 속출하였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집사람만의 것은 아니었다. 여러 직원이 나서서 수업 시간 동안 영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해 주고, 꽃을 사러 갈 때에도 동행해 주는 등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보람찬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 집사람의 꽃꽂이 강습은 자문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기와 취미를 살려 현지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관 여직원 대상의 무료 꽃꽂이 강습 봉사

현지 사람들을 도울 길이 없을까?

과테말라에서 일하며 큰 보람을 느낄 때면 절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났다. 삶에서 이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문득 부족하고 가진 건 없지만 이 감사한 마음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 전 미얀마에서 3년 정도 근무할 당시에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고민 없이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이발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과테말라 시골 지역은 머리를 자르지 못해 투박한 머리 모양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그래 이거야” 이발 기구 세트를 구매한 나는 이발 자격을 가진 분을 찾아가 기초 이발·미용 기술을 속성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한 달간의 연습과 집사람의 머리를 다듬는 데 성공한 자신감으로 지역 내 무료 이발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를 시작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봉사였지만, 머리를 감지 않아 빗질마저 되지 않는 소녀, 버짐이 뒤덮은 소년, 베컴 선수 머리로 깎아 달라는 학생까지 내 손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보람은 무엇보다 컸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점차 숙달되자 속도도 빨라지고 기술도 향상되었다.



1) 이발 기술을 배우는 모습
2) 현지 소녀의 머리를 다듬는 모습





1) 이발 봉사 후 아이들과 함께 2)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 지원금을 전하며

여러 빈민 지역을 다니며 이발 봉사를 하다 보니 나를 믿고 머리를 맡기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저들의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 주고 있구나 싶어 오히려 더 감사했다. 특히 여성들의 머리를 다듬은 후에는 머리핀을 선물하곤 했는데, 작은 선물 하나에도 뿔 듯이 기뻐하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추억이 되었다.

한편 기관 내에서 누군가를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 도움이 되기로 했다. 기관의 추천을 추천 받아 개인적으로 매년 말 적은 액수지만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가 자문관으로 파견되어 담당하는 업무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기쁨이 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철저한 체력 관리가 곧 성공이다

자문관으로서 공적인 성패는 업무 실적이겠지만, 개인적인 성패는 단연 건강 관리일 것이다. 특히 과테말라와 같이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실외 활동이 위축되어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체력 관리에 실패하기 십상이다. 내 경우에는 교민 및 현지인에게 수소문

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소개받았다.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다. 더욱이 유럽풍의 건축물과 아름다운 가로수, 잘 가꾸어진 정원과 사철 만발한 아름다운 꽃을 덤으로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니 이보다 좋은 환경이 또 있을까. 거의 매일 일과를 마친 후 가족과 함께 1시간 정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다.

현지에 적응하고 체력도 좋아지면서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예전에 즐겼던 테니스를 다시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방법을 궁리하던 나는 구글의 항공 사진을 찾아 과테말라시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식별하고 하나씩 방문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발품을 팔며 노력한 끝에 현지 테니스 협회가 나를 회원으로 배려해 주었고, 덕분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양호한 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KOICA 소장을 비롯한 자문관단에도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매 주말 친선 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땀을 흘리며 즐겁게 운동하다 보니 파견 생활 내내 체력이 달린다는 느낌 한 번 없었고, 병원에도 간 적 없이 건강하게 업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자문관들은 이미 현직에서 은퇴



걷기 운동을 했던 장소

한 고령자이고, 대부분의 파견국은 기후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낙후된 곳이기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NIPA, KOICA 자문관(전문가) 제도가 생긴 것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명실공히 개도국에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매년 자문관 지원자의 수도 점차 늘고 있으며, 수원국의 수요와 요청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

다. 반면 아직 많은 수원국은 환경, 정치, 경제, 치안 등 불안하고 열악한 부문이 많아 파견 전부터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부임 후 초기 적응이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기관과의 관계, 대사관이나 KOICA 사무실과의 긴밀한 협조는 업무 수행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니스 운동을 마치고

나는 치안의 어려움이 많은 과테말라에서 3년을 보냈기에 현지 생활 적응에 많은 비중을 뒀다. 자연스럽게 종교 생활에 의지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았으며, 자동차 구입과 같이 일상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현지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한글 교육, 무료 꽃꽂이 강습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이발 봉사, 지원금 전달 등을 통해 그들 곁에서 진심을 다하려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각종 스포츠 정보를 찾아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체력 관리에 부단히 애썼다.

다시 말해 안전 관리, 체력 관리, 인간 관리, 정보 획득 등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현지 적응에 노력한 결과 2번의 추가 연장 근무까지 기쁘고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에서의 내 경험은 단편적인 것이고, 저마다 임지의 환경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후임 자문관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테말라
심재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 / 석사
- 前 국방부 근무
- 前 미얀마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 WFK NIPA Advisors - 과테말라 비상사태운영센터 파견